

추석 명절 대비 전국 축산농가 및 관련 시설 소독 계획

- ❖ 명절을 맞아 사람·차량의 이동 증가로 구제역, ASF 및 고병원성 AI 등 발생 위험 증가, 위험관리를 위해 축산 관련 시설 일제 소독 추진

1 소독 계획

- (소독일자) 추석 연휴 시작 전·후인 9.23.(수), 9.28.(월) 2일간 실시

※ 발생시군 공동방제단 및 임차소독 자원은 추석 연휴 포함하여(9.24.~9.27.) 소독 실시

- (소독대상) 전국 축산농장, 도축장 등 총 약 23만 개소(KAHIS 기준)

대상	구분
축산농장 (167,541호)	우제류 농장(104,413호), 가금류 농장(63,128호)
축산관계시설 (9,855개소)	종축장(1,052개소), AI센터(33), 도축장(125), 도계·도압장(77), 집유장(90), 사료공장(1,341), 가축시장(115), 부화장(290), 비료제조업(623), 가축분뇨처리장(815), 식용란수집판매업(3,035), 가축인공수정소(2,259)
축산시설 출입차량 (54,028대)	가축운반(21,754대), 사료·조사료운반(12,304), 운영관리(8,863), 컨설팅(3,621), 알운반(2,696), 원유운반(652), 분뇨·퇴비운반(3,779), 가금상하차인력운반(169), 난좌운반(48), 사체·가금부산물운반(142)
방역취약대상	야생멧돼지 검출지(19.9~) 주변 도로, 철새도래지(112개소), 전통시장 가금판매소(200), 계류장(81), LSD 방제 대상 시군(38), 항만(6)

- (소독방법) 가용 방역차량 등 소독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일제 소독

- ① (축산농장) 농장주 등은 자체 소독장비를 활용하여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설·장비 등 보수 조치

- 시군, 농협은 공동방제단, 임차 소독차량을 활용하여 농장 진입로, 주변 도로 등 집중 소독

② (축산관계시설) 자체 소독장비를 동원하여 시설의 내·외부 청소·소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군에 보고

③ (축산시설 출입차량) 운전자는 관내 인근 거점 소독시설 방문 또는 소속 공장(회사)에서 차량 내·외부 소독*

* 축산차량 외부의 바퀴, 흙받이 및 차량 내부 운전핸들, 신발 매트 중점 세척·소독

④ (방역취약대상) 시군·공동방제단·임차 소독차량 등을 활용하여 소독 실시, 야생멧돼지 검출지역은 가능한 별도 소독 차량 운영*

* 소독 차량 구분 운영 제한 시 축산농가 소독 후 취약 대상 소독

- (야생멧돼지 검출지점) ASF 검출 지점 주변도로 집중소독*

* 검출 지점 반경 10km 내 양돈농장 진입로 및 축산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 (철새도래지) 철새도래지 및 주변도로 집중소독*

* '25/'26 야생조류(분변 등) AI 바이러스 검출지점 및 축산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 (소독반 편성) 시군은 일제 소독 참여 기관별(시군, 공동방제단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소독 구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소독반 구성·운영